

명저산책

Review



준 내쉬의 『마야인의 이상향: 전지구화 시대에 자율성을 찾아서』¹⁾

김명혜

1. 마야인들의 이상향 추구와 치아파스 봉기

포폴 부(Popol Vuh)에는²⁾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마야 조상들은 [...]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자신들의 한계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었다. 그러나 마야 신들은 자신들의 환영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울 표면에 숨을 뿔어대면서 자신들의 창조물들을 감추어버렸다. 그들의 환영은 흔들렸고, 그들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들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마야 조상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찾아내고자 하는 탐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마르코스(Marcos)가 1994년 1월 소규모 마야 반란군을 이끌고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1) 원저의 제목은 Mayan Visions: The Quest for Autonom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으로 2001년 Routledge(New York/London)에서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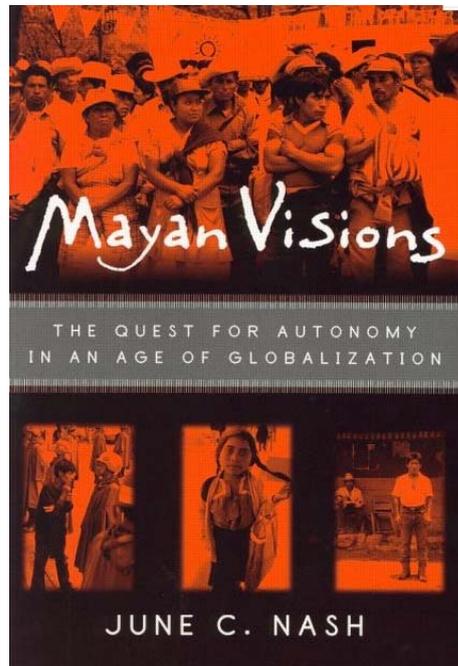
2) 세계/우주에 관한 키체(K'iche') 마야인의 신화적이면서 역사적인 서사로서 “공동체에 관한 책” 혹은 “민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창조, 조상, 역사, 우주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Nacional)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의 산 크리스토발(San Cristóbal del las Casas)로 진격해 들어 간 이후 치아파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사파티스타 봉기의 출발점은 1980년대 멕시코의 외채위기였다. 멕시코는 수출을 통한 수익의 점점 더 많은 비율을 외채상환에 지출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비용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축되었다. 또한 IMF는 멕시코 정부에게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통화가치

의 평가절하를 요구하였고, 멕시코가 이러한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사파티스타 봉기와 관련된 신자유주의적 공격의 또 다른 측면은 멕시코 헌법 27조의 개정이었다. 이러한 헌법 개정으로 멕시코혁명 이후 계속되던 토지분배는 종결되었고,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던 에히도(ejido)의 사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917년 헌법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27조는 멕시코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정당과 국가는 이 헌법 조항에 의거해 온정주의적인 토지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원주민 공동체는 오랜 동안 추구해왔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들은 공동자원의 기반상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스타!”(Basta!: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외치면서 무기를 들고 봉기하였던 것이다.



준 내쉬, 『마야인들의 이상향: 전지구화 시대에 자율성을 찾아서』

멕시코의 치아파스는 사파티스타의 봉기로 말미암아 전지구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정치적 관광객’과 급조된 정치전문가를 끌어들였다. 그들은 사파티스타 봉기가 새로운 정치형태를 띠, 지구상에서 최초로 일어난 ‘탈근대적인 혁명’이고, 소위 공산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공’ 이후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좌파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었다고들 이야기했다. 사파티스타 봉기는 시애틀과 프라하에서 전자구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한 일로,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모델로 여겼다.

저자는 “원주민이 다가오는 세기에 주요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주민은 오랜 동안 유지해 온 세계관, 즉 자기결정권, 권력수단으로서의 도덕적 권위, 공동의 생계전략, 그리고 다민족적이면서 비위계적인 독특한 세계관에 입각해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 제목인 ‘Mayan Visions’를 “세상의 균형유지를 위한 공동작업의 중심에 마야인을(그리고 다른 원주민 사회를) 위치지우는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균형 잡힌 세상은 민주주의, 생물권역 관리(biosphere management), 그리고 성 관계(gender relations) 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저자의 평생 관심사인, 생계형 생산 활동을 위해 자원을 공동소유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로부터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광산자원과 생물자원 추출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이다.

2. 전지구화 시대의 마야인

이 책은 멕시코 원주민의 사회운동과 지구화 과정에 대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특히 치아파스에 거주하고 있는 마야 원주민이 시민사



치아파스의 아마테낭고 원주민

회에 발을 던기 시작한 이후 여러 문화의 공존을 위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인류학적인 재현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늘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의식의 본질에 관한 보다 야심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연대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치아파스 원주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각 장에서 다루고 있다.

1장 서론 이후 2장은 저자가 1957년에 민족지적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치아파스의 아마테낭고(Amatenango del Valle)로 다시 돌아가서, 식민 시대 원주민 ‘공화국’ 시절부터 원주민 마을공동체 시절, 그리고 “1917년 이후 출현한 제도적 혁명공동체” 시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400년간 어떻게 원주민 마을공동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라티노(Latino) 지배사회가 가하는 문화적인 부담을 한편으로는 흡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하면서 변형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자신의 현지조

사 경험을 기능주의적인 설명과 대비시켜 가면서 당시에 원주민 공동체에
게 가해지고 있었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힘에 관해 반추하고 있다.
저자는 산악지대와 라칸돈³⁾ 열대우림지대를 구분 짓는 소유권과 정착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규모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동시에 공
동체로부터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야기한 도덕적 권위의 문제와 생계를
둘러싼 사회적 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 저자는 약 40년에 걸쳐 자신이 목격한 원주민의 저항 및 축
하 행동,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촉발시킨 가족과 마을에서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주목하면서 원
주민 협동공동체가 직면한 위기, 제도혁명당(PRI)이⁴⁾ 1970년대에 펼쳤던
토지재분배 정책의 실패, 그리고 1980~90년대 농업정책이 가족 및 가구
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여러 분석 층위를 연결시키면서 서로 다른 과정들
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반의 장들은 원주민 사회운동
이 조상들의 믿음체계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야인의 욕망에 의
해 촉발되었다는 점과 함께 1990년대에 일어난 급진적인 민주화 움직임
과 그 이후에 발생한 복잡한 여파를 맥락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4장에서는 1994년 1월 사파티스타 봉기 이후 1996년 2월 산 안드레
스(San Andrés) 합의가⁵⁾ 이루어지기까지 치아파스에서 일어났던 급진적
인 민주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어떻게 의례
적인 언어형태와 ‘마을 정치의 관행’에 의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
야인의 ‘문화적인 논리’를 하나의 특정한 세계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3) 라칸돈(Lacandón)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야의 후손으로서 20세기까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주로 멕시코의 치아파스와 과테말라에 걸친 열대우림지대에 많은 공동체
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다.

4)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은 멕시코 혁명시절 카예스
(Plutarco Elías Calles)가 만든 정당으로 70여년을 집권해 왔다. 현재는 혁명 당시
의 사회주의적 성격보다는 중도적 혹은 중도우파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멕시코 정부는 사파티스타와 합의를 통해서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계
획과 함께 기존의 정당체제 밖에서 연방 공무원 및 주 공무원 후보를 내보낼 수 있
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합의 이후로 사파티스타는 무기를 내려놓고 정치조
직으로서 재정비하기 시작하였지만 합의는 종내 시행되지 못했다.

들어, 마야 연장자가 수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파티스타 지도자가 받아들이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행위나 혹은 공동체적 만남을 극화하면서 신성한 곳을 거론하는 것 등은 “서구적인 사고 범주를 피해가는 복합 민족 사회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임을 보여준다.

5장에서는 군사주의와 멕시코 정부의 약속 불이행 속에서 발전된 치아파스 평화운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1996년 밀림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개시한 원주민 집단에 대한 게릴라전은 시민과 군인 간의 경계를 없애고 무장 남성이 여성과 아이에게 행한 폭력상을 잘 드러낸다. 특히 이 5장에서는 원주민 여성을 변화의 선봉자로 보면서 여성이 어떻게 사파티스타 계급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여성 존재 자체가 남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조직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5장은 군사력 혹은 유사 군사력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시민단체의 존재, 그리고 사파티스타를 멕시코 정치의 중심에 가져다 놓은 토지투쟁과 경제적/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주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장인 6장은 특히 다문화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마야인의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전지구적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담론 분석, 정체성 형성, 전지구화의 공간 지리학 등을 포함하는 탈근대주의적 책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들을 구체적인 공간에 위치시키고, 총체적인 탐구를 위해 재개념화 작업을 꾀한다. 치아파스에 살고 있는 마야인은 아직은 국경을 넘어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마야인까지 포괄하는 범마야 프로그램을 수행할 만한 단계에 이르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초국가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존 내쉬(June C. Nash)와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 책의 저자인 존 내쉬는 종종 ‘근대 인류학의 살아있는 우상(icon)’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 치아파스에서 인류학자로 현지조사를 했었고 이후 볼리비아 연구에 오랫동안 몰두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다시 치아파스로 돌아가서 1994년의 봉기가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왔다. 이러한 저자의 오랜 연구여정을 반영하는 저작물은(다수의 논문은 제외하고) 이 글 말미에 적어놓았다.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에 관해서는 멕시코 인류학자들을 비롯해서 외국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써왔지만 본 연구물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거의 반세기에 걸쳐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세계가 변화해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성(gender)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와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사는 실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류학자로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저자는 인류학의 주요 방법론인 참여관찰을 수행해 나가면서 단순한 관찰보다는 참여에 방점을 두고 학문적인 실천을 해 왔다.

저자는 자신의 초기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마테낭고 마을을 “배꼽”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신의 분석을 실제적인 삶과 때로는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그러한 삶과 죽음이 펼쳐지는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이후 40년 간 아주 상세한 조사를 해낼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던 곳임을 의미한다. 이에 걸맞게 본 연구는 단순한 마을연구가 아니고 지역, 주(州), 국가, 세계 시장, 국제기구를 포괄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침투와 신자유주의가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하나의 특정한 사회운동, 즉 1994년에 사파티스타 반란이 일어나게 된 조건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저자의 아마테낭고 마을공동체에 관한 분석은 매우 풍부한 정보



아마테낭고의 경제적 변화. 상업적 공예가 이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이 속해 있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과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가 기술하는 변화에는 경제적인 변화(트럭, 길, 이주, 상업적 공예 등), 정치적 변동(PRI의 쇠퇴, 여성들의 운동 참여), 그리고 문화적인 변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저자는 실제로 무엇이 원주민 사회운동에서 ‘원주민’적인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치아파스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시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구적인 가정에 제약을 받기 보다는 고유한 문화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주민공동체는 위엄, 자율성, 공동성, 그리고 다민족적 공존, 권력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화 등을 중시하는 원주민의 ‘아비투스’라⁶⁾ 것이다.

6) 아비투스(habitus)는 프랑스 인류학자인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창한 개념으로, 사람들은 변화하는 상황, 즉 새로운 사고의 도입이나 새로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진”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저자는 사파티스타 봉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탄압과 고조된 정치적 행동주의에 관한 중요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혹자에 따라서는 저자가 아마테낭고와 1990년대 목격담을 치아파스 주, 멕시코라는 국가, 그리고 지구촌 내에 위치시키고 거대이론에 집어넣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자신이 해 온 현지조사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좀 더 알차고 설득력 있는 책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연구에 있어서 저자는 전지구화적 관점을 자신의 정치경제적 관점과 접목시키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탈근대적인 탐구를 치아파스 원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자신의 노력과 결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저자 스스로는 원주민이 분열되거나 혼성적이거나 혹은 쇠락하고 싶어서 쇠락하고 있다고는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인 장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땅으로부터 실질적인 것을 생산해내야 하는 실제적인 필요성을 500년 간 지속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한때 계급투쟁이라고 여겼던 한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유지되어 온 실제적인 물질적 관심사들 간의 전반적인 갈등의 역사”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으나 저자의 탈근대적인 실험이 공동체, 마야, 사파티스타 등을 낭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4. ‘원주민’ 중심적 연구의 의의와 한계

광범위하고 흔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치적 변화의 힘과 원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방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지구적인 변화의 과정은 특정 지역집단, 특히 여러 가지 자원추출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침투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계생산자 집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과거 및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지구촌 경제의 주변부에서 혹은 시장경제의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원주민이 자신의 통제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과 행동을 통해 반응하는 원주민/노동자의 일상적인 경험을 그리고 있다.

전지구화 과정이 대부분의 지구촌 사회를 포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치아파스에 사는 마야인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장교환체제가 통제되지 않은 채 삶의 모든 측면에 파고들고 있고, 노동-보상 체제는 그러한 체제에 영향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한 채 작동되고 있다. 저자는 전지구화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새로운 자본의 흐름 속에서 가장 주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전제, 즉 바로 그 전지구적인 자본주의의 조건을 하나의 주어진 조건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전지구화적 세계체제에 대한 원주민의 대항논리를 치아파스에서 일어났던 봉기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원주민들의 반란이 의미하는 바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성의 중요성, 인간의 위엄성과 도덕적 가치의 강조(인권 수호의 권리), 원주민운동에 있어서 전통 유지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중심점이 되어 온 여성의 역할, 그리고 500년 간 자신의 생계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세계체제의 대안적 사회체제 등이다. 저자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보이는 참신한 정치방식과 그러한 정치방식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 세상을 조직하는 ‘마야적인’ 방식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원주민의 ‘탄력적인 아비투스’는 세대를 거쳐서, 특히 여성을 통해서 구전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자율성의 실천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고, 가정 및 사회 내에서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책을 통해 펼치고 있는 논의는 종종 네 개의 동심원으로 비유되곤 한다. 제일 가운데에 저자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약 40년에 걸쳐서 글을 써 왔던 아마테낭고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는 1994년 반란의 출발지인 치아파스가 있으며, 그리고 다음에는 멕시코 국가체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구적인 ‘통합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 네 개의 동심원 위에는, 저자가 반대하는 듯한 ‘이성주의적인 서구적 관점’을 가진 이론이 존재한다.

그런데, 치아파스-멕시코-세계경제를 꿰고 있는 저자의 이론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문제이기는 하나,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자유주의보다 크게 더 낫지 않고 둘 다 본질적으로 이성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서구적 관점이라는, 불분명한 주장을 편다. 반면에 “독특한 세계관에 기초한 원주민의 사고방식”은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논리와는 달리, “땅과의 신성한 연계”에 기초한 “조화라는 이상”과 “환경 윤리”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민의 사고방식은 유럽 백인의 우월성에 반하는 “공동 노동과 공통의 믿음체계”에 기초한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다민족적 자율성”을 지닌 형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본질주의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저자가 마야적인 특징과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자율성, 위엄, 인내, 도덕성 등은 ‘서구적’ 사고라는 큰 범주 안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가치일 뿐 실천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마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소위 원초적으로 마야적인 가치와 믿음체계는 저자가 책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마녀사냥이라든지, 살인, 그리고 가부장제적인 학대 등을 방지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외부 압력의 결과이고 “500년에 걸친 지배계급과의 접촉과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비원주민적인 행동과 민

음체계를 내면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어떤 학자는, 마야인이 서구 식민세력과 접촉하기 이전에는 자연과 더불어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순진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마야인은 계층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끝날 줄 모르는 전쟁에 시달렸으며,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계적인 반전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분명 ‘마야 정체성’이라는 것이 현재에도 형성되고 있는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마야’ 역사를 기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저자의 접근방법은 멕시코 국가체제의 주변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전지구화에 반하여 벌이는 책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 책은 원주민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 즉 서구적 사고 범주를 피해가는 관점의 논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경쟁적인 풀뿌리 조직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파괴된 사회세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미래의 노력에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책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에 직면한,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길과 철학에 대한 추구 및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전지구화와 인류학적 사고(현재성)

저자는 현재 인류학의 책무는 “전지구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이 구축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전선을 따라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전지구화의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 속에 그러한 구체적인 운동을 위치 짓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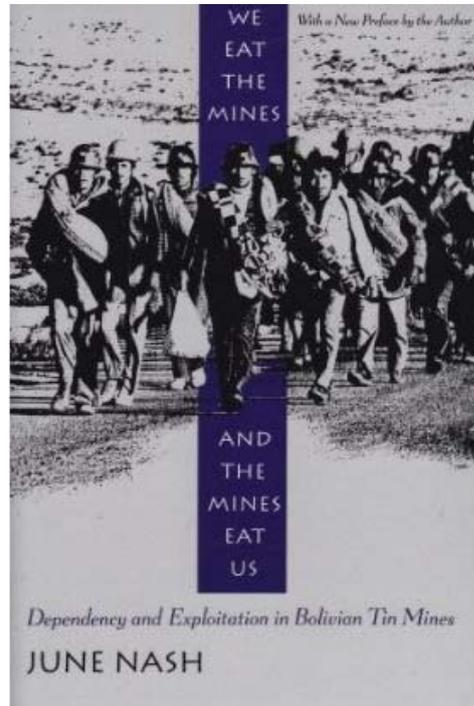
이 책의 이론적인 입장은 복잡하면서 대담하기도 하다. 물질주의적인 접근방법이 주요 장(chapter)의 논의를 이끌어가고 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리고 저자는 정치경제의 힘에 대한 기존 연구를 단순히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의 지적 경향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저자는 위치 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과 다원적 위치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도모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마야 원주민을 인종집단과 국가정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주역으로 보면서, 인류학자가 연구지역에서 목격하는 전지구적 과정을 포함하는 인류학적 모델을 새롭게 고안해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인류학자는 연구변수를 확장시켜야만 전지구 체제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할 수 있고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에 공헌해 온 우리 인류학자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몇몇 탈근대주의자가 종합적인 분석에 방해가 되는 배타적인 접근방법(예를 들어 담론 분석, 정체성 형성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피하고 총체주의적인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인류학자 및 여성주의 학자뿐만 아니라 역사가와 다른 사회과학자에게도 중요한 이론 틀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인류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목표에 좀 더 민감해지고 그러한 요구를 전지구적 상황 속에 위치지어 보도록 종용한다. 내쉬는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깊이의 연구(저자는 1950년대 후반에 차아파스에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와 폭넓은 연구(저자는 차아파스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와 미국 메사추세츠에서도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경험을 차아파스 민족지 연구에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역할을 통합시키는 참신한 공생적 접근방법을 쓰고 있다. 저자는 1988년에서 1993년까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차아파스에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경험, 통찰력, 그리고 학자적 자질 등을

모두 합쳐서 이 책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는 특권을 부여받은 학자이다. 왜냐하면 인류학적 문화연구는 주류적인 사고와 행동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러한 대안적인 눈을 통해서 권력 중심지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학자가 누리는 특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학문 내에서의 비평뿐만 아니라 민족지를 스스로 쓰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비평이 이루어지면서 인류학자는 연구결과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와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준 내쉬, 『볼리비아 주석 광산의 종속과 착취』

준 내쉬의 라틴아메리카 연구관련 저서 목록

1970/1985. *In the eyes of the ancestors belief and behavior in a Maya commun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7. *Ideology and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edited volume with Juan Corradi and Hobart Spalding, Jr.).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79/1993.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dependency and exploitation in Bolivian tin min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Sex and class in Latin America: women's perspectives on politics, economics, and the family in the Third World*. (edited volume with Helen I. Safa). Brooklyn, NY: J. F. Bergin Publishers.

1983. *Women, men,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edited volume with María Patricia Fernández Kell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Women and change in Latin America: new directions in sex and class*. (edited volume with Helen I. Safa). South Hadley, MA: Bergin & Garvey.

1992. *I spent life in the mines: the story of Juan Rojas, Bolivian tin miner*. (edito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Crafts in the world market: the impact of global exchange on Middle American artisans*. (edited volum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1. *Mayan visions: the quest for autonom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2005. *Social movements: an anthropological reader*. (edited volume).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

2007. *Practicing ethnography in a globalizing world: an anthropological odyssey*. Landham, MD: Alta Mira Press.

김명혜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